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의 보고 비교

Agreement between Parent and Adolescent Reports on Parenting Behaviors

뉴욕주립대학 · 소아청소년정신과
박사후연구원 임 정 하

Dept of Psychiatry, State Univ of New York
Postdoc Research Fellow : Lim, JungHa

◀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agreement between parent and adolescent reports on parenting behaviors. The participants were 196 father-mother-adolescent triads.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ports of parenting behaviors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Generally, parents reported higher respect, disciplines and attention than their adolescents did. However, there were low to high agreements between parental report and adolescent report on parenting behaviors. The degree of those agreements varied by adolescent's developmental stage, birth order and mother's education. The findings suggested that differences in agreements between parent and adolescent reports on parenting behaviors might not be random and the agreements should be addressed in terms of specific sample characteristics.

주제어(Key Words): 양육행동(parenting), 다중보고자(multi-informants), 부모-자녀 간 보고의 일치도(agreement between parent and adolescent reports)

1. 서론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족에 대한 자기보고식 연구에서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 중 청소년이나 부모 중 어느 한 보고자의 응답을 이용하여 가족원의 행동을 측정하였다(Marcos & Draper, 1990). 이처럼 단일 보고자로부터 측정된 자료를 이용해 양육행동과 발달특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우 해당 보고자의 관점이나 견해만을 대표하기 쉬우므로 연구결과의 해석

이나 적용에 제한점이 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중 보고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측정치를 비교하거나 통합하여 가족 내 여러 구성원의 관점을 반영하는 방법(Holmbeck & O'Donnell, 1991; Smetana, 1991; Tein, Roosa & Michaels, 1994 등)이 점차 시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이나 분석방법 또는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국내의 양육행동 관련 연구에서 다중보고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이용한 경우(박영애, 1995)는 아직까지 매우 소수이

Corresponding Author: JungHa Lim, Dep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and Biomedical Science, SUNY at Buffalo, 133 Hodge Ave. Buffalo, NY 14222, USA. Tel: 1-716-878-7982 Fax: 1-716-888-3935 E-mail: jennajlim@gmail.com

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보고자 응답 간의 차이점이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다중보고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양육행동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먼저, 다중보고자로부터 여러 관점의 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양육행동'이라는 현상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중보고자 방식은 양육행동 측정치를 분석할 때 가족 내 구성원의 점수를 통합하는 것이 적합할지 가족 구성원 개개의 점수를 따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중보고자를 이용해 가족원의 행동을 측정한다면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유사한 생각이나 신념을 공유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다. 양육행동의 경우 특히 부모가 의도한 대로 청소년이 지각할 때 양육행동의 효과가 적절히 나타난다면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 보고 혹은 지각의 일치정도는 효율적인 양육행동의 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Cashmore & Goodnow, 1985; Fogas & Wolchick, 1986; Garber, Robinson, & Valentiner, 1997; Schwarz, Barton-Henry, & Pruzinsky, 1985 등)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는 양육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 자녀의 보고가 관련되는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거나 보통 정도였다. 나아가 부모와 자녀 간 보고의 불일치 정도뿐 아니라 이들 보고의 불일치정도가 자녀의 발달특성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도 몇몇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Fogas & Wolchick, 1986; Ohannessian, Lerner, Lerner, & von Eye, 2000)에서는 양육행동에 대해 부모의 보고와 자녀의 보고가 일치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불일치할수록 자녀의 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부모와 자녀 간 양육행동에 대한 보고의 차이나 관련성 정도가 자녀의 적응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나 청소년의 적응을 이해하고자 할 때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자녀 보고간의 일치나 그 관련요인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보고자 간의 차이나 관련성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아버지-어머니-청소년의 보고를 이용하여 양육행동이 보고자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부모-청소년 보고의 관련성이 인구학적 하위표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부모집단이 보고한 양육행동과 청소년집단이 보고한 양육행동 간에 차이가 있는지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별로 부모집단이 높게 보

고하는지 혹은 청소년집단이 높게 보고하는지를 검증하고 이들 두 집단의 보고 분포를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 청소년의 보고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 관련성이 인구학적 하위표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중보고자로부터 입수한 양육행동에 대한 기초자료 및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육행동에 대해 부모와 청소년의 보고를 비교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 청소년의 보고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보고자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Smetana(199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집단과 비교하여 부모집단은 자신의 양육행동을 민주적이라고 평가한 경우가 많았고, 청소년집단은 부모집단이 평가한 것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허용적 양육과 권위주의적 양육이라고 평가한 경우가 많았다. 대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Schwarz와 그 동료들의 연구(1985)에서는 양육행동 중 수용 요인에 대해 부모집단의 보고가 대학생자녀집단의 보고보다 더 높았고, 심리적 통제 요인에 대해서는 대학생자녀집단의 보고가 더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의 차이에서 부모나 대학생자녀의 성별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Gordon(1999)의 연구에서는 양육행동 중 적대, 감독, 일관된 훈육에 대해 부모집단이 청소년집단보다 더 높게 보고하였으며 애정에 대해서는 청소년집단이 부모집단보다 더 높게 보고하였다. 특히 애정에 대해서 부-녀간 지각의 차이가 모-녀간 지각의 차이보다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와 청소년의 보고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양육행동 하위요인별로 다를 수 있고 부모나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부모가 보고한 양육행동과 자녀가 보고한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다룬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어머니와 초기청소년 간의 상관관계는 .11~.14로 나타났고(Fogas & Wolchick, 1986),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와 초기청소년의 상관관계는 .21~.30으로 나타났다(Tein *et al.*, 1994).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어머니와 대학생자녀 간의 상관관계는 .31~.41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해 아버지와 대학생자녀 간의 상관관계는 .19~.29로 보고된 바 있다(Schwarz *et al.*, 1985). 전반적으로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 자녀의 보고는 서로 관련이 있으나 관련성의 정도는 부모나 자녀의 성별,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련정도를 보고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연구(Ohannessian, Lerner, Lerner, & von Eye, A., 1995)에서는 후기청소년들이 초기청소년들에 비해 가족에

대해 부모와 보다 더 유사하게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Tein et al., 1994)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내적 위협요인(예: 아동의 우울)이 적은 경우에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 내적 위협요인이 많은 경우보다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 보고의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 내 자녀의 수가 적은 경우에도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덧붙여 이들 부모-자녀간 보고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출생순위 또한 양육행동에 대한 보고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출생순위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Sputa & Paulson, 1995)에 따르면 청소년이 보고한 부모의 관여와 양육행동은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가 보고한 경우는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 발달단계, 출생순위,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하위표본을 만들고, 이들 하위표본에 따라 부모-청소년 보고의 관련성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부모집단이 보고한 양육행동과 청소년집단이 보고한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 2) 부모가 보고한 양육행동과 청소년이 보고한 양육행동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 3) 부모가 보고한 양육행동과 청소년이 보고한 양육행동의 관련성 정도는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기청소년 또는 후기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각각 대략 청소년기 초기(11~14세)와 후기(15~19세)에 해당하므로(Fabes & Martin, 2000: 59) 청소년의 발달단계별로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이들 학년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고등학교 7개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총 196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에서 중2집단의 평균연령은 13.67세였으며 이들 중 남학생은 62명, 여학생은 48명이었다. 고2집단의 평균연령은 16.63세였으며 이들 중 남학생은 51명, 여학생은 35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

부모와 청소년이 보고한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임정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변 인 | | 대상자 수(백분율) | |
|----------|--|------------|-----------|
| 성 별 | 남 | 113(57.7) | |
| | 여 | 83(42.3) | |
| 학 년 | 중2 | 110(56.1) | |
| | 고2 | 86(43.9) | |
| 출생순위 | 첫째나 외동 | 104(53.1) | |
| | 그 외 | 92(46.9) | |
| 부모의 교육수준 |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무응답 | 부 | 모 |
| | | 15(7.7) | 22(11.2) |
| | | 75(38.3) | 93(47.4) |
| | | 65(33.2) | 53(27.1) |
| | | 22(11.2) | 10(5.1) |
| 19(9.6) | 18(9.2) | | |
| 부모의 직업 | 생산·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전문기술직 관리·전문직 기타 무직 전업주부 무응답 | 부 | 모 |
| | | 18(9.2) | 10(5.1) |
| | | 55(28.1) | 37(18.9) |
| | | 46(23.5) | 17(8.7) |
| | | 25(12.8) | 11(5.6) |
| | | 28(14.3) | 4(2.0) |
| | | 6(3.0) | 4(2.0) |
| | | 3(1.5) | 0(0) |
| | | 0(0) | 100(51.0) |
| | | 15(7.7) | 13(6.6) |

하와 정옥분(2004)이 개발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32문항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30문항에 대해 청소년자녀가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식(‘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다소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답하게 되어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모두 각각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신 요인(부 11문항, 모 12문항)은 ‘나와 관련된 일이 잘못되면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요인은 자녀의 말이나 행동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일일이 지적하며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을 말한다. 존중 요인(부 8문항, 모 5문항)은 ‘내 의견에 찬성하지 않으실 때도 내 의사를 존중해주신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요인은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녀의 의견이나 태도를 이해하고자 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자녀의 역량과 가능성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을 말한다. 가르침 요인(부 7문항, 모 9문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고 말씀하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는 자녀에게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가르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사회 기초질서나 공공의식을 깨닫도록 이르는 등 인격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끝으로 관심 요인(부 4문항, 모 6문항)은 ‘내 친구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자녀가 방과 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자녀의 교우관계에 대해 아는 등 자녀의 생활 및 행동과 관계된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공통요인분석에서 나타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의 총 설명변량은 아버지 양육행동 38.87%, 어머니의 양육행동 37.68%였다. 또한 척도 개발시 한국판 부모-자녀결합 형태 검사(문경주, 오경자, 2002)와 각 하위요인별 관련성을 제시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임정하, 정옥분, 2004). 척도 개발시 보고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아버지 양육행동의 경우 .68~.84,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77~.83이었고, 3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아버지 양육행동 .73~.78, 어머니 양육행동 .71~.83이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아버지 양육행동의 경우 불신 .90, 존중 .85, 가르침 .74, 관심 .47,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불신 .86, 존중 .69, 가르침 .76, 관심 .73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보고한 양육행동과 부모가 보고한 양육행동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의 문항을 아버지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문항을 어머니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각각 수정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동일 번호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응답자에 따라 서술의 인칭을 바꾸고 현실적 동질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문항의 표현을 약간 조정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가 보고한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아버지 양육행동의 경우 불신 .79, 존중 .77, 가르침 .79, 관심 .64,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불신 .79, 존중 .52, 가르침 .78, 관심 .6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03년 8월 26일에서 9월 6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수집되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4개교와 고등학교 3개교를 유의표집하여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11개 학급의 학생 356명에게 청소년용 질문지 및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각 학교의 교사를 통해 수업시간에 배부하였으며 청소년용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작성한 후 수거하였고, 부모용 질문지는 청소년을 통해 부모에게 보낸 후, 1~3일 후에 수거하였다.

회수한 질문지는 청소년용 334부(회수율 94%), 아버지용 273부(회수율 77%), 어머니용 293부(회수율 82%)였다. 이들 중 편부모 가정의 자료(11부),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10부), 필적대조를 통해 청소년이 대리기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35부)와 어머니가 아버지용 질문지를 대리기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27부) 등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용

198부, 어머니용 221부, 청소년용 313부가 되었다. 이들 중 아버지-어머니-청소년이 동시에 쌍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대상으로 실제 분석에 포함된 것은 아버지-어머니-청소년 196쌍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또한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별로 총점을 하위요인의 문항 수로 나누어 각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청소년이 보고한 양육행동과 부모가 보고한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별로 보고자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보고자 집단별 효과크기는 Cohen의 공식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양육행동 각 요인별로 보고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하위표본 간 두 상관계수의 크기가 서로 유의하게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 *z*검증(Kanji, 1999: 35)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경우 가설검증 시 유의수준으로 $\alpha = .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집단과 청소년집단의 보고 비교

1)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부-자 집단과 부-녀 집단의 보고

아버지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별로 아버지집단의 보고와 청소년집단의 보고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 네 가지 하위요인 중 불신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요인에서 아버지집단의 보고와 아들집단의 보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집단은 자녀에 대한 가르침, 관심, 존중을 아들집단보다 더 높게 보고하였다. 실질적 유의성 측면에서 집단 간 표준화된 평균차이인 Cohen의 *d*를 바탕으로 이들 보고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불신에서는 작은 차이가 나타났으나, 관심과 존중에서 중간이상의 차이가 나타났고 가르침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 1) Cohen's $d = (M_1 - M_2) / \sigma_{\text{pooled}}$, $\sigma_{\text{pooled}} = \sqrt{(\sigma_1^2 + \sigma_2^2) / 2}$, M 은 각 집단의 평균, σ 는 각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말함 (Cohen, 1988: 20-21). 여기서 모집단의 표준편차 추정치로 각 집단의 표준편차를 이용함.
- 2) 관찰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평가하는 데 있어 효과크기인 Cohen의 *d*값이 약 .20이면 작은 효과, 약 .50이면 중간 효과, 약 .80이면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Cohen, 1988: 24-27).

〈표 2〉 아버지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아버지집단과 아들집단의 보고차이에 대한 *t*검증

| 아버지의 양육행동 | 아버지 | | 아들 | | df | t | d |
|-----------|------|-----|------|-----|-----|---------|-----|
| | M | SD | M | SD | | | |
| 불신 | 2.63 | .63 | 2.50 | .76 | 112 | 1.90 | .19 |
| 존중 | 3.68 | .59 | 3.18 | .80 | 112 | 6.46*** | .71 |
| 가르침 | 4.27 | .54 | 3.69 | .63 | 112 | 8.60*** | .99 |
| 관심 | 3.55 | .77 | 3.16 | .80 | 112 | 4.14*** | .50 |

****p* < .001

〈표 3〉 아버지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아버지집단과 딸집단의 보고차이에 대한 *t*검증

| 아버지의 양육행동 | 아버지 | | 딸 | | df | t | d |
|-----------|------|-----|------|-----|----|---------|-----|
| | M | SD | M | SD | | | |
| 불신 | 2.52 | .48 | 2.28 | .83 | 82 | 2.80** | .35 |
| 존중 | 3.68 | .50 | 3.29 | .69 | 82 | 4.75*** | .65 |
| 가르침 | 4.36 | .51 | 3.84 | .66 | 82 | 6.61*** | .86 |
| 관심 | 3.57 | .76 | 3.23 | .83 | 82 | 3.68*** | .43 |

p* < .01, *p* < .001

〈표 3〉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 네 가지 하위요인 모두 아버지집단의 보고와 딸집단의 보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집단은 자녀에 대한 불신, 존중, 가르침, 존중을 딸집단보다 더 높게 보고하였다. 실질적 유의성 측면에서 집단 간 표준화된 평균차이(Cohen의 *d*)는 가르침, 존중, 관심, 불신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모-자 집단과 모-녀 집단의 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별로 어머니집단의 보고와 청소년집단의 보고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네 가지 하위요인 중 불신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요인에서 어머니집단의 보고와 아들집단의 보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집단은 자녀에 대한 가르침, 관심, 존중을 아들집단보다 더 높게 보고하였다. 실질적 유의성 측면에서 집단 간 표준화된 평균차이인 Cohen의 *d*를 바탕으로 이들 보고의 차이를 살펴보면, 불신에서는 작은 차이가 나타났으나, 관심과 존중에서 중간이상의 차이가 나타났고 가르침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표 5〉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네 가지 하위요인 모두 어머니집단의 보고와 딸집단의 보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집단은 자녀에 대한 불신, 존중, 가르침, 존중을 딸집단보다 더 높게 보고하였다. 실질적 유의성 측면에서 집단 간 표준화된 평균차이(Cohen의 *d*)는 가르침에서 크게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어머니집단과 아들집단의 보고차이에 대한 *t*검증

| 어머니의 양육행동 | 어머니 | | 아들 | | df | t | d |
|-----------|------|-----|------|-----|-----|---------|-----|
| | M | SD | M | SD | | | |
| 불신 | 2.57 | .57 | 2.46 | .63 | 112 | 1.50 | .18 |
| 존중 | 3.69 | .50 | 3.32 | .73 | 112 | 4.81*** | .59 |
| 가르침 | 4.31 | .46 | 3.84 | .61 | 112 | 7.38*** | .87 |
| 관심 | 4.04 | .56 | 3.61 | .74 | 112 | 5.73*** | .66 |

****p* < .001

〈표 5〉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어머니집단과 딸집단의 보고차이에 대한 *t*검증

| 어머니의 양육행동 | 어머니 | | 딸 | | df | t | d |
|-----------|------|-----|------|-----|----|---------|-----|
| | M | SD | M | SD | | | |
| 불신 | 2.56 | .57 | 2.28 | .75 | 82 | 3.17** | .42 |
| 존중 | 3.69 | .50 | 3.48 | .59 | 82 | 2.67** | .38 |
| 가르침 | 4.37 | .44 | 3.93 | .50 | 82 | 7.66*** | .93 |
| 관심 | 4.01 | .55 | 3.78 | .62 | 82 | 3.15** | .39 |

p* < .01, *p* < .001

나타났고, 불신, 관심, 존중에서 중간미만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아버지집단이나 어머니집단은 청소년집단이 보고한 것에 비해 더 많이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존중하며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두 집단 보고의 실제 분포 간에는 중간에서 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가르침 요인에서 분포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컸다. 반면 자녀들을 못 믿어하고 자녀의 생활에 지나치게 많이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불신 요인의 경우, 부-자 집단의 보고나 모-자집단의 보고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녀집단의 보고와 모-녀집단의 보고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보고와 청소년보고의 관계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별로 부모보고와 청소년보고의 관련성을 Pearson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하위요인 모두에서 아버지보고와 청소년보고 간 유의한 정적 상

〈표 6〉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청소년 보고의 관계

| 하위요인 | 아버지-청소년 | 어머니-청소년 |
|------|---------|---------|
| 불신 | .41*** | .18* |
| 존중 | .28*** | .17* |
| 가르침 | .26*** | .27*** |
| 관심 | .29*** | .31*** |

p* < .05, *p* < .01, ****p* < .001

관이 나타났다. 이들 보고자 간의 관련성 정도는 불신에서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하위요인에서는 이보다 낮게 나타났다(.26~.29).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들 보고간의 상관계수는 관심, 가르침, 불신, 존중 순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불신요인과 존중요인에 대해서는 아버지-청소년 보고간의 유사성이 어머니-청소년 보고간의 유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보고와 청소년보고의 관련성이 인구학적 하위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때 청소년의 성별, 발달단계, 출생순위 및 부모의 교육수준별로 하위표본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두 하위표본 상관계수의 크기가 유의하게 다른지를 z검증으로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크기는 자료의 빈도분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Cohen & Cohen, 1983: 70-72) 부모보고와 청소년보고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기 전에 각 하위표본별로 부모와 청소년이 보고한 양육행동 변량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F검증 결과, 청소년이 보고한 부모의 양육행동 중 다음 4가지 경우 비교하는 두 하위표본의 변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어머니의 관심($F=4.95, p<.05$), 아버지의 교육수준별 아버지의 불신($F=4.91, p<.05$)과 아버지의 존중($F=4.38, p<.05$),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아버지의 불신($F=7.07, p<.01$)의 경우 비교되는 두 하위표본의 변량이 동질적이지 않았다. 한편, 아버지가 직접 보고한 양육행동의 경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불신($F=9.27, p<.01$), 발달단계에 따른 불신($F=4.09, p<.05$)의 경우 비교되는 두 하위표본의 변량이 동질적이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가 직접 보고한 양육행동에서는 청소년의 출생순위별 가르침($F=4.09, p<.05$)의 경우 비교되는 두 하위표본의 변량이 동질적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두 하위표본을 비교한 전체 빈도의 17.5%에서는 각 요인내 비교되는 수준별 집단의 변량이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해당요인별로 두 하위표본의 변량을 비교한 결과, 초기청소년집단,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집단, 출생순위가 둘째이상인 집단, 여학생 집단에서는 비교되는 상대집단에 비해 변량이 유의하게 작았다. 이는 이들 해당 하위표본에서 상관관계 산출시 자료의 범위가 제한되어 상관계수가 작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7>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각 하위집단별 두 상관계수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가르침에 있어 후기청소년-어머니간의 보고는 초기청소년-어머니간의 보고보다 더 유사하게 나타났다($r=.43, p<.001$ 대 $r=.15, ns; z=2.11, p<.05$). 또한 존중에 있어 첫째나 외동인 청소년의 보고가 그 외의 출생순위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보다 어머니의 보고와 더 유사하였다($r=.33, p<.01$ 대 $r=.01, ns; z=2.29, p<.05$). 관심의 경

<표 7> 각 하위집단별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청소년 보고 간의 관계 및 두 상관계수 비교를 위한 z검증

| 성 별 | 아버지의 양육행동 | | 어머니의 양육행동 | |
|----------|-----------------|-----------------|--------------------|------------------|
| | 남(n=113) | 여(n=83) | 남(n=113) | 여(n=83) |
| 불 신 | .42*** | .38*** | .11 | .26* |
| 존 중 | .32** | .22* | .19* | .12 |
| 가르침 | .25** | .26* | .19* | .39*** |
| 관 심 | .19* | .43*** | .29** | .35** |
| 발달 단계별 | 초기 청소년 (n=110) | 후기 청소년 (n=86) | 초기 청소년 (n=110) | 후기 청소년 (n=86) |
| 불 신 | .35*** | .48*** | .11 | .26* |
| 존 중 | .28** | .30** | .11 | .24* |
| 가르침 | .22* | .36** | .15 ^a | .43*** |
| 관 심 | .32** | .30** | .37*** | .23* |
| 출생 순위별 | 첫째와 외동 (n=104) | 그 외 (n=92) | 첫째와 외동 (n=104) | 그 외 (n=92) |
| 불 신 | .41*** | .41*** | .28** | .09 |
| 존 중 | .24* | .35** | .33*** | .01 ^a |
| 가르침 | .36*** | .15 | .36*** | .11 |
| 관 심 | .26** | .34** | .32** | .30** |
| 부 교육 수준별 | 부)고교 이하 (n=90) | 부)대학 이상 (n=106) | 부)고교 이하 (n=90) | 부)대학 이상 (n=106) |
| 불 신 | .38*** | .42*** | .14 | .22* |
| 존 중 | .20 | .33*** | .05 | .25* |
| 가르침 | .13 | .35*** | .34** | .23* |
| 관 심 | .25* | .32** | .28** | .33** |
| 모 교육 수준별 | 모)고교 이하 (n=115) | 모)대학 이상 (n=80) | 모)고교 이하 (n=115) | 모)대학 이상 (n=80) |
| 불 신 | .41*** | .38*** | .13 | .23* |
| 존 중 | .18 | .40*** | .11 | .23* |
| 가르침 | .21* | .31** | .30** | .24* |
| 관 심 | .32** | .26* | .20 ^a * | .47*** |

* $p < .05$, ** $p < .01$, *** $p < .001$
^a 두 상관계수의 비교 $p < .05$ 차이

우, 청소년의 보고는 고교 이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보고보다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보고와 더 유사하였다($r=.47, p<.001$ 대 $r=.20, p<.05; z=2.07, p<.05$). 그러나 이 외에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자간 보고의 관련성과 모-녀간 보고의 관련성을 비교한 경우나 모-자간 보고의 관련성과 모-녀간 보고의 관련성을 비교한 경우에는 상관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보고와 청소년의 보고간 관련성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하위표본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 청소년의 보고를 비교하고 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집단과 청소년집단의 양육행동에 대한 보고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집단의 평균이 청소년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뿐만 아니라 실제 두 집단의 점수분포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이나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즉 불신 요인의 경우 부-자간 보고나 모-자간 보고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녀간 보고나 모-녀간 보고를 비교했을 때는 부모집단이 딸집단보다 더 높았다. 집단별 평균을 살펴보면 아들집단은 상대적으로 딸집단에 비해 아버지나 어머니 양육행동에서 불신을 훨씬 더 높게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불신을 보고하는 정도가 달라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불신에 대한 아들집단 보고는 부모집단의 보고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딸집단의 보고는 부모집단의 보고보다 더 낮았다.

가르침, 존중 및 관심의 경우, 평균적으로 부모집단의 보고는 아들집단이나 딸집단의 보고보다 더 높았다. 특히 가르침 요인의 경우 실제 두 집단 보고 분포의 차이가 부모나 청소년의 성별에 관계없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부모집단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전적으로 부모집단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고하였기 때문이라고만은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부모집단과 딸집단의 보고를 비교했을 때 불신과 같이 역기능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부모집단의 보고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에 대해 부모집단이 더 높게 보고하는 경향은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Gordon(1999)의 연구에서도 양육행동 중 적대, 감독, 일관된 훈육에 대해 부모집단이 청소년집단보다 더 높게 보고하였고 Schwarz와 그 동료들의 연구(1985)에서도 양육행동 중 수용 요인에 대해 부모집단의 보고가 대학생자녀집단의 보고보다 더 높았다. 이처럼 부모와 청소년 간 양육행동에 대한 보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양육행동의 저변에 있는 부모의 의도를 자녀가 본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실제보다 더 과대하게 평가하여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이러한 결과가 동일한 행동도 부모와 자녀라는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해 다르게 지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 청소년의 보고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Cohen(1988: 82)이 행동과학 연구에서 제시한 효과크기 기준³⁾에 근거해 살펴보면 부모보고와 청소년보고간의 관련성은 중간정도에서 큰

정도에 걸쳐 나타났다(상관계수 .17~.41).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청소년의 보고 간 관련성(.28~.41)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청소년 보고 간 관련성(.17~.31)보다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만 8~1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Tein과 그 동료들(1994)의 연구에서 아버지-자녀 보고간 일치도(상관계수의 평균 .27)가 어머니-자녀 보고간 일치도(상관계수의 평균 .23)보다 더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만 12~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Gordon, 1999)에서는 양육행동에서 어머니-자녀 보고간 일치도(상관계수의 평균 .21)가 아버지-자녀 보고간 일치도(상관계수의 평균 .15)보다 더 높다고 보고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보고가 자녀의 보고와 더 유사하다거나 아버지의 보고가 자녀의 보고와 더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아가 부모보고와 청소년보고의 관련정도는 하위표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가르침이나 존중, 관심에 대한 어머니보고와 청소년보고 간의 관련정도는 청소년의 발달단계, 출생순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다. 특히 가르침의 경우 후기청소년들이 초기청소년들보다 어머니와 더 유사하게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하여 인지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어머니의 의도와 행동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관심의 경우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이 고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어머니들보다 청소년들과 더 유사하게 보고하였다. 이는 보고의 관련성이 청소년의 특성뿐 아니라 부모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자녀 간 보고의 관련성은 제 3의 변인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 반드시 구체적인 표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하위표본별 부모의 보고와 청소년의 보고 간 관련성을 비교할 때 두 하위표본 상관계수의 크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던 하위표본 간에는 변량이 동질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하위표본 중 일부에서는 비교되는 집단의 변량이 동질적이지 않았다. 이는 하위표본별로 부모보고와 청소년보고의 상관계수를 산출할 때 변량이 작은 하위표본에서는 자료의 범위가 제한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료의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상관계수가 실제보다 더 낮게 산출되어 하위표본 간 보고자간 관련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하위표본 간 보고자간 관련성이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결론은 비교되는 하위표본이 동질적인 변량

3) 상관계수(r)를 Cohen의 d 로 전환한 경우, 상관계수 .371은 큰 효과를 나타내는 .80에, 상관계수 .243은 중간 효과를 나타내는 .50에, 상관계수 .100은 작은 효과를 나타내는 .20에 해당한다.

을 가진 조건에서 다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보고한 양육행동과 청소년자녀가 보고한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다. 부모집단은 평균적으로 청소년집단보다 더 많이 자녀를 가르치고 존중하며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양육행동 중 불신에 대해 부모집단은 딸집단에 비해 더 높게 보고하였으나 아들집단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전반적으로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 청소년의 보고 간에는 관련이 있어 부모나 청소년 중 어느 한 사람이 높게 보고하면 다른 한 사람도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자녀 보고의 관련정도는 청소년의 발달단계나 출생순위, 또는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보고와 청소년보고의 관계는 가르침의 경우 후기청소년집단에서 보다 밀접하게 나타났고, 존중의 경우 첫째나 외동 집단에서 더 밀접하게 나타났으며, 관심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밀접하게 나타났다. 반면,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자녀 보고의 관련정도는 이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양육행동에 대한 다중보고자 방식의 연구가 극소수인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로 보고자간 양육행동의 차이와 관련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 제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행동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이 보고한 양육행동에 대해 부모는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살펴본 경우라고 하겠다. 둘째,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 중 청소년이 보고한 아버지 양육행동의 관심요인과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행동 중 존중요인에서 내적합치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의 결론과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중보고자로부터 수집한 양육행동 자료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가정 내 부모와 청소년자녀가 양육행동에 대해 보고한 점수 간 차이를 산출하여 부모와 청소년 보고 간 불일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불일치 정도와 가정환경적 특성이나 청소년의 발달특성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중보고자에게 자료를 수집한 경우, 양육행동에 대한 측정치로 보고자별 점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가족구성원 모두의 점수를 통합한 경우를 비교하여 이들 측정치가 이후 청소년의 발달 특성(예: 성취동기, 사회적 책임감, 비행 등)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연구의 주제에

따라 보다 적합한 보고자를 선택하거나 보다 적절한 양육행동 점수 산출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양육행동에 대해 부모집단의 보고와 청소년집단의 보고간 차이가 있었지만, 이러한 결과가 부모나 청소년 어느 쪽의 보고가 더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이라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다중보고자의 정보가 보다 객관적인 제3자의 관찰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는 특정 상황(예: 자녀의 학교문제에 대한 토론, 방학에 대한 계획 논의 등)에서 나타나는 양육행동을 제3자가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자의 관찰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자기보고식 자료를 이용한다면 다중방법 간 평가점수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자의 평가는 부모나 자녀 중 어떤 보고자가 양육행동을 더 객관적으로 보고하는지를 판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문경주, 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정하, 정옥분(2004).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1(4), 55-73.
- Cashmore, J. A., & Goodnow, J. J. (1985). Agreement between generations: A two-proces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6, 493-501.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abes, R., & Martin, C. L. (2000). *Exploring child development - Transaction and transformations*. Boston: Allyn and Bacon.
- Fogas, B. S., & Wolchick, S. A. (1986, May). *Multiple reports of stress,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following divorce*. Paper presented at the 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Seattle, W.A.
- Garber, J., Robinson, N. S., & Valentiner, D. (1997).

-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12-33.
- Gordon, L. C. (1999). Linking gender differences in parenting to a typology of family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developmental outcomes.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Holmbeck, G. N., & O'Donnell, K. (1991). Discrepancies between perceptions of decision making and behavioral autonom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1, 51-69.
- Kanji, G. K. (1999). *100 Statistical Tests*. Thousand Oaks, CA: Sage.
- Marcos, A. C., & Draper, T. W. (1990). Capturing family variables. In T. W. Draper & A. C. Marcos (Eds.), *Family variables: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use* (pp. 13-18). CA: Sage Publication.
- Ohannessian, C. M., Lerner, R. M., Lerner, J. V., & von Eye, A. (1995). Discrepancies in adolescents' and parents'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 490-516.
- Ohannessian, C. M., Lerner, R. M., Lerner, J. V., & von Eye, A. (2000). Adolescent-parent discrepancies in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and early adolescent self-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3), 362-372.
- Schwarz, J. C., Barton-Henry, M. L., & Pruzinsky, T. (1985). Assessing child-rearing behaviors: A comparison of rating made by mother, father, child, and sibling on the CRPBI. *Child Development*, 56, 462-479.
- Smetana, J. G. (1991). Adolescents' and mothers' evaluations of justifications for conflicts. In R. L. Paikoff (Ed), *Shared Views in the Family During Adolescence: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l. 5, pp. 71-86). San Francisco: Jossey-Bass.
- Smetana, J. G. (1995). Parenting styles and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during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299-316.
- Sputa, C. L., & Paulson, S. E. (1995). Birth order and family size: influences on adolescents' achievement and related parenting behaviors. *Psychological Reports*, 76, 43-51.
- Tein, J., Roosa, M. W., & Michaels, M. (1994). Agreement between parent and child reports on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41-355.

(2006년 2월 28일 접수, 2006년 5월 11일 채택)